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특별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3월 18일(금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故 한광호 열사의 염원이다! 유성기업 노조파괴 끝장내자!



유성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을 매 자결했다. 3월 17일 새벽 6시 40분경 충북 영동 한 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故 한광호 조합원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맞서왔다. 현대차가 직접 개입하며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 지회 대의원을 맡아서 활동하며 금속노조를 지키기 위해 누구 보다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사측의 계속되는 감시, 차별, 징계, 고소고발에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유성기업은 14일(월)에도 故 한광호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었다.

지부 산하 지회 중에 노조파괴로 신음하는 지회가 많다. 2011년 유성기업, 2012년 보쉬전장, 컨티넨탈이 노조파괴를 시도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특히 유성기업은 용역장폐를 동원한 폭력사태까지 일으키며 가장 악랄한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또한 현장에서 '노조탄압 백화점' 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그 결과, 유성지회 조합

원들의 정신건강은 극도로 악화됐다. 정신건강 위험군이 일반인의 6배가 넘었다.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도 4명이나 있었고, 현재도 2명이 산재신청을 진행 중이다.

故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은 유성기업의 타살이다. 노조파괴가 불러온 비극적인 타살이다. 금속노조는 故 한광호 조합원을 열사로 인정하고 죽음의 원인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끝장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대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합작한 노조파괴는 노동부, 검찰의 비호 아래 지금까지 유성기업 현장을 유린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이 진저리나는 노조파괴를 두고볼 수 없다. 지금도 현장은 징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쟁으로 노조파괴 반드시 끝장내자!

**유성기업은 열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노조파괴 중단하라!**

[성명서]

故 한광호 열사의 정규가 돌리는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중단하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결국 노동자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3월 17일 새벽 6시40분경 충북 영동에서 유성기업 영동지회의 한광호 조합원이 숨진채 발견됐다. 故 한광호 열사는 회사 측의 노조파괴가 극심했을 때도 지회 대의원 등 간부 역할을 하며 노동조합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임했다. 그런 열사에게 돌아온 것은 회사의 차별, 감시, 징계, 고소고발 등 모진 탄압 뿐이었다. 최근에도 회사는 열사에게 징계위원회 사전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웠던 열사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유성기업은 2011년부터 창조건설탕이라는 불법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현대자동차라는 굴지의 재벌을 등에 업고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유성기업 어용노조 조직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목표수치까지 지시하는 등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개입했다. 현대차라는 든든한 배후를 둔 유성기업은 용역깡패,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 진압은 물론이고 어용노조를 이용한 노노갈등 유발 등으로 금속노조를 말살하려 했다. 현장에서는 어용노조와 차별,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감시, 인간적 모독이 수시로 벌어졌다. 이런 탄압에 저항하면 징계가 내려졌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정신 건강은 극도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얼마나 해쳤는지 끝없이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다. 노조파괴 이후 4년간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조합원이 40%를 훌쩍 넘었다. 우울 장애를 가진 전 국민 비율이 6.7%인 것과 비교하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이런 조사 결과 마저도 무시하고 노조파괴를 지속했다. 현장의 탄압은 여전했다. 해고자들은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노숙을 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현장 조합원들은 끊임없는 징계,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한 조합원은 회사로부터 50건에 달하는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열사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유성기업은 이윤을 위한 노조파괴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을 직접 목도했다.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열사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즉각 노조파괴를 중단해야 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성기업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5년째 이어지는 노조파괴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故 한광호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2016년 3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